

2020년 9월 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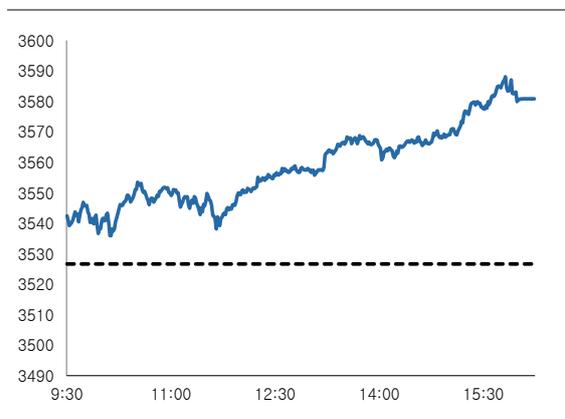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애플, 테슬라 Vs. 알파벳, 반도체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으나 테슬라(-5.83%)가 장중 15% 급락하자 상승분 반납. 그러나 연준위원들의 저금리 기조 유지 언급과 파우치 소장이 백신 조기 승인 관련 발언으로 상승폭이 재차 확대.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 회복 둔화를 언급했으나 경기 둔화시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속 영향 제한(다우 +1.59%, 나스닥 +0.98%, S&P500 +1.54%, 러셀 2000 +0.87%)

미 증시는 ①경제지표 ②베이지북 ③ 연준위원들 발언 ④파우치 소장 발언 ⑤개별 종목 이슈로 변화. ADP 는 8 월 민간 고용이 예상(90만건)을 하회한 42.8만건을 기록해 고용 불안 우려를 자극. 다만, 7 월 공장주문(mom +6.4%)이 견고해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 더불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활동에 부정적 이라고 언급. 이런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연준의 새로운 금리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라며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를 시사. 더불어 YCC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핵심” 이라며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

한편,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 되는지 여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코로나 백신의 임상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임상시험을 일찍 종료하고 백신의 조기 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해 지수 상승을 견인. 주식 분할로 급등했던 테슬라(-5.83%)가 장중 15% 급락하기도 하자 상승세를 이어왔던 개별 종목들의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음. 그러나 NVIDIA(+3.80%)의 칩 발표 후 대다수 투자회사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하자 급등 했고 이 결과 마이크론(+4.52%)등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이끔. 여기에 알파벳(+3.76%)은 디지털 세금을 광고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해 대형 기술주 강세를 이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64.37	+0.63	홍콩항셍	25,120.09	-0.26
KOSDAQ		866.74	+1.57	영국	5,940.95	+1.35
DOW		29,100.50	+1.59	독일	13,243.43	+2.07
NASDAQ		12,056.44	+0.98	프랑스	5,031.74	+1.90
S&P 500		3,580.84	+1.54	스페인	6,996.90	+0.57
상하이종합		3,404.80	-0.17	그리스	644.20	+0.72
일본		23,247.15	+0.47	이탈리아	19,858.21	+1.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테슬라 부진 Vs. 알파벳, 페이스북 강세

테슬라(-5.83%)는 최대 외부 주주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라며 지분을 기존의 6.32%에서 5% 미만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15%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며 낙폭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테슬라 여파로 애플(-2.07%)을 비롯해 세일즈포스(-1.62%), 줌비디오(-7.46%) 등이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반면, NVIDIA(+3.80%)가 전일 발표한 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 대다수의 투자은행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한때 6.6%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은 축소되었다. 오히려 이보다 마이크론(+4.52%), 인텔(+2.87%)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급등했다. 더불어 램리서치(+6.50%), 웨스턴디지털(+4.07%) 등이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4% 상승했다. 더불어 알파벳(+3.76%)이 디지털세금을 광고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급등했다. 결국 비용 전가로 실적 둔화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페이스북(+2.39%), 트위터(+6.12%) 등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3%	대형 가치주 ETF(IVE)	+1.76%
에너지섹터 ETF(OIH)	-1.31%	중형 가치주 ETF(IWS)	+1.71%
소매업체 ETF(XRT)	+0.57%	소형 가치주 ETF(IWN)	+0.86%
금융섹터 ETF(XLF)	+1.43%	대형 성장주 ETF(VUG)	+1.03%
기술섹터 ETF(XLK)	+0.89%	중형 성장주 ETF(IWP)	+1.0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0%	소형 성장주 ETF(IWO)	+0.79%
인터넷업체 ETF(FDN)	+0.81%	배당주 ETF(DVY)	+1.91%
리츠업체 ETF(XLRE)	+2.2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1%
주택건설업체 ETF(XHB)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6%
바이오섹터 ETF(IBB)	+1.47%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2.00%	하이일드 ETF(JNK)	+0.17%
곡물 ETF(DBA)	-0.13%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2.65%	Long/short ETF(BTAL)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2.95	-0.42%	-1.46%	-6.91%
소재	415.86	+2.28%	+4.43%	+7.12%
산업재	673.29	+1.63%	+2.66%	+8.25%
경기소비재	1,283.28	+1.24%	+2.28%	+10.15%
필수소비재	684.99	+1.90%	+3.25%	+5.77%
헬스케어	1,273.61	+2.09%	+2.41%	+2.56%
금융	422.68	+1.50%	+2.67%	+4.65%
IT	2,232.92	+0.92%	+4.18%	+11.53%
커뮤니케이션	215.83	+2.19%	+1.82%	+11.96%
유틸리티	305.31	+3.12%	+2.86%	+0.10%
부동산	229.25	+2.24%	+3.35%	+2.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보합을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26%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는 경기가 팬더믹 이전을 크게 하회한 상태이며 특히 고용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미 국무부의 중국 외교관에 대한 제재 발표 및 테슬라의 장 중 한때 15% 급락이라는 변동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준위원들이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과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이러한 투자심리의 견고함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급락했으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 외국인 매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지수는 제한된 모습 속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NVIDIA 에 힘입어 2.84% 상승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변화가 이어져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장중 발표되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지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예상 하회

ADP 는 8 월 미국 민간 고용자수는 전월(21.2 만건)을 상회한 42.8 만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예상치인 90 만건을 크게 하회해 고용불안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50 인 미만의 소기업 고용은 5.2 만건 증가에 그쳐 지난달 발표(7.3 만건)을 하회했다. 500 인 이상의 대기업 고용이 전월(15.7 만건)보다 크게 증가한 29.8 만건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7 월 미국 공장주문은 지난달 발표치(mom +6.4%)와 같은 전월 대비 6.4% 증가해 예상(mom +6.0%)를 상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주간 원유재고에 대해 93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하락했다. 가솔린도 432 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또한 168 만 배럴 감소 했으나 멈췄던 시추시설이 재가동 되고 있다며 향후 공급 증가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달러화가 유로화 약세에 기대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고용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일부에서 유로화 강세가 유럽 경제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반등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자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졌고 이 결과가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더 나아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를 촉발한 점도 영향을 줬다.

미 국채금리는 주가 지수 급등이라는 상승 요인과 고용지표 부진, 연준위원들의 저금리 지속이라는 하락 요인이 충돌하며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결국 장기금리의 경우는 지표 부진과 미국 경기회복 지연 우려로 하락했으나 단기 금리의 경우는 주가지수 강세에 기대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1.7%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7% 철근은 0.3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1.51	-2.92	-4.33	Dollar Index	92.649	+0.34	-0.38
브렌트유	44.43	-2.52	-3.75	EUR/USD	1.1854	-0.49	+0.20
금	1,944.70	-1.73	-0.40	USD/JPY	106.18	+0.21	+0.18
은	27.395	-4.36	-0.76	GBP/USD	1.3352	-0.24	+1.07
알루미늄	1,786.00	-1.68	+0.59	USD/CHF	0.9107	+0.14	+0.26
전기동	6,697.00	+0.14	+2.57	AUD/USD	0.7337	-0.47	+1.44
아연	2,533.50	-0.76	+2.07	USD/CAD	1.3040	-0.18	-0.78
옥수수	358.75	+0.21	+1.27	USD/BRL	5.3527	-0.79	-4.59
밀	558.25	-1.02	+3.43	USD/CNH	6.834	-0.04	-0.68
대두	962.00	+0.76	+4.08	USD/KRW	1185.40	+0.20	-0.12
커피	131.30	-0.08	+7.53	USD/KRW NDF1M	1189.94	+0.37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45	-2.44	-4.39	스페인	0.328	-6.70	-4.50
한국	1.537	-3.30	+13.20	포르투갈	0.346	-6.50	-4.20
일본	0.043	-0.40	-0.30	그리스	1.128	-1.70	+3.30
독일	-0.473	-5.30	-5.80	이탈리아	0.970	-6.40	-4.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